

2009 꿈을 펼쳐라

(5) 타악기 연주자 김 광 숙 씨

타악기 선율화에 깊은 관심 鼓手들의 '소리북' 도전

흥겨운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공연에서 타악 연주자 김광숙(36)씨의 모습은 유난히 도드라진다.

김 씨가 몸담고 있는 민간 국악실내악단 '황토제' 공연 때 역시 가장 많은 환호를 받는 연주자 중 한명이 바로 김 씨다.

인터뷰를 위해 만난 김 씨는 무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왜소했다. 첫 인상은 "저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그런 파워 넘치는 연주가 나올까. 꽤 힘들겠다"는 것이었다.

"공연하면서 북채를 여섯개까지 부러뜨린 적이 있어요. 북에 딱 들어맞는 북채를 찾기 어려운데다 아무래도 남자 연주자들보다 기본적인 힘이 약해 의식적으로 강하게 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대학 동아리서 국악과 인연 4~6개의 모듬북 연주자로 남편과 합동무대 갖는게 꿈

김 씨는 정통 국악인 출신이 아니다. 전남대 중문학과 출신으로 학과 풍물 동아리와 전남대 국악반에서 장구 등을 치기 시작하며 국악과 인연을 맺었고 국과 '풍물천지'에서 활동하다 지난 1997년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에 입성했다.

김 씨는 올해 관현악단의 타악 수석 단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됐다.

"수석 단원이 되고 보니 부담이 많아졌어요. 실력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되죠. 우선 제 자신부터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난해 부상을 당해서, 연주를 하기는 했지만 제 연주 자체가 썩 만족스럽지 못했거든요."

김 씨는 올해 국악의 '기분'이자 '자양분'인 '전통음악' 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여자 고수가 거의 없는 타악 모듬북 단원 마음 속에서만 품고 있던 '소리북 공부'에 도전한다.

김 씨가 소리북 스승으로 삼은 사람은 바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남편 이왕재(40·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원 타악연주자)씨.

"제가 한 일중 가장 잘 할 게 바로 지금 남편과 결혼한 거라 생각해요(웃음). 국악을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힘을 때도 많았지만 그 때마다 남편이 큰 힘이 됐죠.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음악적인 문제들을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타악연주자 김광숙씨는 올해 소리북 공부에도 나설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상의하는 것도 수월하고 성향이 비슷해 참 편해요."

김 씨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모듬북 연주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남편 이씨가 팔 부상을 당해 연주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 김 씨와 딸 수 없는 레퍼토리가 된 모듬북협주곡 '타(打)' 역시 남편의 초연에 이어 바통을 이어받았다.

'타악기의 선율화'에 관심이 많은 김 씨는 특히 애착이 가는 악기인 '징'을 높낮이가 있는 '선율'로 연주하는 꿈을 꾸고 있다. 물론 이 도전은 악기 제작 등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터라 앞으로 꼭 풀어야 할 숙제로 마음에 새기고 있다.

독주회는 모든 연주자들이 꿈꾸는 무대다. 타악기 분야는 독주회용 곡이 별로 없는데다 신명이 나가는 하지만 기본적인 선율이 없어 아주 잘 연주하지 않으면 관객들에게 감흥을 주기 힘들다.

김씨는 음악적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때 독주회를 열어보고 싶다고 한다. 주변에서 늘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편과의 합동 무대' 정도면 근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끝> /김미은기자 mekim@

광주시립미술관에 가면...

또 현대미술 흐름 보인다

올 한해 중작가전 등 풍성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하 시립미술관)이 장샤오강, 웨민권, 정판즈 등 유명 중국 작가들의 초대전을 추진하는 등 올 한해 다양한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다.

시립미술관이 2009년에 준비하고 전시 중 '중국현대미술(11월~2010년1월)'전과 '아시아현대조각(5월 27일~7월 26일)'전이 눈길을 끈다.

중국현대미술전은 현대 미술의 거대 시장인 중국 미술을 이끌고 있는 젊은 작가들을 초대할 대형 기획이다. 장샤오강, 웨민권, 정판즈, 펄리진, 황페이잉 등 중국을 대표하는 작가 15명의 작품을 소개한다. 장샤오강, 웨민권, 정판즈 등 해외 미술시장

의 작품 판매가격 상위 10위를 지키고 있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중국 현대 미술의 흐름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시아현대조각전은 아시아 지역 젊은 조각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흔치 않은 전시회이다. 광주권 작가 10명을 포함한 한국 30명, 일본 15명, 중국 15명 등 아시아권 작가 60여 명이 참여해 영상과 설치, 조각 등 10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또 시립미술관은 '올해의 작가'(11월~12월)전과 '하정웅 청년미술상 빛(8월~9월)'전 등 굵직한 전시회를 계획 중이다.

올해의 작가전은 시립미술관이 해마다 작가 1명을 선정해 전시회를 후원해 주는 기획전이며, 올해는 한국



김형수 작 '금강산 구룡폭포'

화가 석성(碩星) 김형수(80) 화백이 선정돼 한 달간 초대전을 갖는다.

하정웅 청년미술상 빛전은 시립미술관에 2천700여점의 작품을 기증한 하정웅 명예관장의 메세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전국의 청년작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매년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국내의 청년작가 5~6명을 선정해 이들의 신작을 선보인다.

이 밖에 올해에는 시립미술관과 국립대민미술관의 교류전인 '정신의

지형(10월 초~11월 말)'전이 국립대민미술관에서 열린다. 시립미술관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교류전에서는 광주지역 작가들의 회화와 영상, 설치, 조각 등 50여점을 대만에 소개한다.

시립미술관 관계자는 "아시아의 대표 미술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제 교류전을 대거 기획했다"면서 "이들 전시를 통해 지역 작가들이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화사한 비가에 담은 '동심의 꿈'

표현속씨 두번째 개인전

15일까지 북광주우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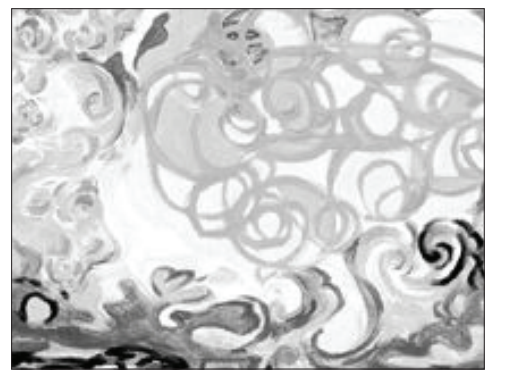
동심의 꿈을 화사한 빛깔로 담아내고 있는 표현속씨가 오는 15일까지 광주시 북구 임동 북광주우체국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표씨는 이번 전시에서 '선과 색의 놀이터'를 주제로 인간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순수함을 강

렬한 원색으로 표현한 신작을 선보인다. '희상'은 나뭇잎, 나뭇가지, 물결 등의 소재를 안장감 있는 구도를 통해 재해석한 작품이며, '공존'은 세상의 다양한 사물들이 경계를 허물고 서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세계를 형상화했다.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천진난만한 풍경을 여과없이 표현했고, 인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사물의 따뜻함을 최대한 강조한 작품들이다.

전남대학교 대학원(서양화 석사)을 나온 표씨는 지난 2002년 무등미술관에서 첫 개인전을 열



'공존'

었다. 현재 화순교육청 미술강사를 맡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순미술아카데미' 수업을 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제 문화도시 교류협회 창립

16일 김대중센터서 창립식

이사장에 정동채 前 장관



문순태씨와 서예가 학정 이문홍씨, 정진택(한국사상문화연구원) 박선정(전 한국문화진흥회 상임감사), 정해숙(인드라망생명공동체 고문), 성진기(전남대 명예교수)씨 등이 이사로 활동하게 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강화하고 글로벌 문화네트워크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이하 교류협회)가 16일 오후 4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창립식을 갖는다.

교류협회의 이사장에는 정동채(사진) 전 문화관광부장관이 선임될 예정이다. 김우창(고려대 명예교수)씨가 상임고문을 맡는다.

광주 살레시오수녀회 '마인 아카데미'

최우수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선정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원하는 '2008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운영 평가 결과 (재)한국천주교 살레시오수녀회 광주지부가 운영하는 '마인 아카데미'의 '짧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랑받기에 충분하다'가 최우수 아카데미로 뽑혔다.

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와 연계한 동반자 프로그램을 상시운영하고 이주가족복지회와 연계해 '다문화 이해하기' 등을 운영

한 서구 청소년수련관의 '꿈꾸는 에벨레고실'이 우수아카데미로 선정됐으며 북구의 '우리누리 방과후 아카데미'와 광산구의 '너티 나루 시어터'는 적정수준 상위 10 곳에 들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방과 후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광주시는 현재 5곳을 운영 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movies featuring various cinema listings like '메가박스', '엔터 시네마', '콜롬버스 시네마', '씨너스 전대', '하미 시네마', and '제일 시네마' with movie titles and showtimes.